

제2회 전북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

다문서 읽기 교육·이심전심 프로젝트 ‘대상’

〈전주오송초〉

〈부안중〉

부안중학교와 전주오송초등학교 교사들이 ‘제2회 전북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에서 각각 수업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2일 전북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본선 경연에는 수업 성장보고서와 수업 동영상 심사, 학교 현장 실사 및 면접 등 예선을 거쳐 선정된 9개 팀, 2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9개 팀은 15분의 수업 강연 후 전문 심사위원들과 현장 참관객(300명) 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업혁신 대상’ 초등, 중등 각 1팀, ‘수업혁신 우수상’ 7팀을 선발했다.

그 결과 수업혁신 초등 대상은 ‘변화된 문식 환경에서 주체적인 독자 양성을 위한 다문서(multiple text) 읽기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전주오송초 장동민·소예은 교사팀이 차지했다.

장 교사는 “수업이론을 연구하는 것과 그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수업혁신 발표대회를 통해 동료 교사와 함께 수업 고민을 나누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수업혁신 중등 대상은 ‘나, 너, 우



‘제2회 전북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 경연에서 전주오송초등학교 장동민·소예은 교사가 초등 대상을(사진 왼쪽), 부안중학교 최호석·정원혁·이연주·임가현 교사팀이 중등 대상을 수상받았다.



중등 대상 - 부안중 최호석·정원혁·이연주·임가현 교사팀

초등 대상 - 전주오송초 장동민·소예은 교사팀에게 돌아가

리: 이심전심 프로젝트’로 발표에 나선 부안중 최호석·정원혁·이연주·임가현 교사팀에 돌아갔다. 특히 이 팀은 올해 신규 교사를 비롯해 4명 모두가 3년차 이하 새내기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최 교사는 “신규 교사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 4명으로 이뤄진 팀이지만

1년 동안 교사연구회를 함께하면서 서로의 수업을 꾸준히 나누고 연구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업혁신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

이자,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면서 “더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선생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2025 대입 정시 집중상담기간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16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서 사전 신청 후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층 대입진학지도지원실에서 ‘2025 대입 정시 집중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면상담은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교육지원청별 상담 장소는 △전주교

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2층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1층 따순카페 △정읍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남원교육지원청 1층 대입지원실 △김제교육지원청 3층 학력지원센터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http://www.jbe.go.kr/jinro>)에서 ‘대입 대면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사전 신청 후 참여하면 된다.

정시 집중 대면상담 기간 동안 상담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중복신청 시 모

두 취소될 수 있다.

상담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0여 명이 참여하며, 상담 진행시에는 수능 성적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진학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화상상담도 제공된다. 화상상담 신청자는 줌(Zoom)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유료선 중등교육과장은 “정시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최적화된 대입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상산고, 5~10일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원서접수 진행

상산고등학교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오는 5~10일 6일간 이뤄진다.

온라인 원서접수 후 지원 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되, 방문 제출은 10일 하루만 진행된다.

2일 상산고등학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 영역으로 전북 지역 학생을 68명 선발한다. 남학생은 45명, 여학생은 23명이다. 2024년 10월 31일 이전부터 전북 지역에 거주하고, 도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지역인재 영역으로 지원 가능하다.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 2024년 10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 또한 지역 인재 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사회통합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2024학년도 0%에서 14%가 증가된 것으로, 인원으로는 총 68명(남45, 여23)에 이른다. 상산고 사회통합 영역 중 50%(34명)는 기회균등 영역으로 우선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다. 나머지 50%는 사회다양성 영역으로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한편 상산고등학교의 사회통합 및 지역인재 영역은 그간 학교가 비움 및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 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각 20%씩 의무 선발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확대 및 현행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장은성 기자

맞춤형 예비학부모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5학년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비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녀의 학교생활 준비와 성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비 학부모 교육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자료 개발은 물론 강의까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차세대 절연·방열 열 계면 복합재료 제작 연구 ‘성과’

전북대 장승연 석사과정생, 섬유공학회 ‘우수’

전북대학교 장승연 석사과정생(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이 최근 개최된 ‘2024년 한국섬유공학회·한국열색가공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서 장승연 석사과정생은 ‘1차원 및 2차원 질화붕소 하이브리드 필러 기반 열 계면 재료(TIM)의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 최적화 및 내부 구조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를 진행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장승연 석사과정생은 1차원(BNNT) 및 2차원(h-BN) 구조의 질화붕소 하이브리드 필러가 적용된 고분자 복합 재료를 제작 후 3차원 필러 네트워크인 나노 인터커넥션(Nano-



interconnections)의 형성을 관측했으며, 하이브리드 필러의 조성 최적화에 따른 열전도도 향상 거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장승연 석사과정생은 “학부 과정부터 진행해 온 연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기쁘다”며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이끌어 준 김성륜 지도교수님과 연구실 선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분자 및 복합소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륜 지도교수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부와 연구실 생활을 병행하며 훌륭한 연구성과를 일궈낸 장승연 학생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식품영양 분야 근무 졸업생 초청 진로 토크콘서트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학과장 김미나경민)가 졸업생 초청 토크콘서트를 잇달아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2일 전북대에 따르면 식품영양학과는 대학본부 취업진로처와 협업을 통해 학과 맞춤형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주인봉초등학교, (주)하림,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5명의 학과 졸업생들을 초청해 재학생 대상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 주제는 △임상영양학적 관점에서의 식품연구(한국식품연구원)를 비롯해 △유산균 소재 개발과 연구자의 길(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영양교사의 직무 소개 및 채용 특징



(전주인봉초등학교) △품질·생산관리 직무와 채용 안내(주하림) △어린이와 노인의 행복한 급식(덕진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졸업 선배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특히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90%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장은성 기자

제22대 전교조 전북지부장단 선거 실시

지부장에 오도영·사무처장에 전보라 당선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날 26~28일 사흘간 실시된 전북지부장단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오도영(현 전북지부장 사무처장, 전주예술고)-전보라(전주이중초) 후보가 전체 투표자의 96.26%를 득표해(투표율 73.6%) 제22대 전교조 전북지부장·사무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2026년까지 2년이다. 이에 따르면 오도영-전보라 당선자는 ‘현장밀착 전교조, 지킨다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최우선으로, 교사들의 삶을 옹호하기’를 목표로, ‘교사들을 교육정책의 주체로 세우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오도영 지부장 당선자는 “후보로서 한 달여 동안 학교방문을 다니면서 문제행동 학생,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압박 등에 무너지는 선생님에게 달려



가 선생님들 돕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도영 지부장 당선자는 1995년 전주예술고에 입학한 후 다음 해에 전교조에 가입했다. 현재 전북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김장나눔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 제1대 ‘하림’학생회는 지난 29일 ‘김장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따뜻한 복지 문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원주군 용진읍 신지암로에 위치한 다정레스도랑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및 각 학과 학생회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한편, 미래융합대학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미래 군 발전 주도 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국군 드론작전사령부, 학술교류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 김용대)와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미래 군 발전을 주

도할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2일 우석대에 따르면 최근 국군 드



최근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협약식이 열렸다.

삼기초 ‘에디트’, 환경보건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3위’

삼기초등학교 환경보건 동아리 에디트(지도교사 이대혁)가 ‘2024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2일 전했다.

환경부는 교육기관에 자발적인 환경보건 학습·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자 환경보건 동아리를 지원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환경동아리 에디트는 ‘함께 발견하는 즐거움, 배려와 공감의 환경보건교육’이라는 주제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해 심층

적으로 탐구하고, 일상생활 속 실천 방안을 제시해 왔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버섯 재배, 폐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 황토를 활용한 천연염색과 같은 체험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AI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친환경 재질을 설계 및 제작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한 점도 주목 받았다.

특히 동아리 학생들은 독서교육과 연계해 환경 유해물질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로 웹툰 제작, 종이 가구 제작, 환경보건 지킴이 캐릭터 만들기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배운 내용을 표현했다.

김동명 교장은 “전국대회 3위 수상은 삼기초등학교와 동아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